

경기도 '경기기후위성' 1호기 순항

1호기 궤도 안착 후 시운전 성공... 2·3호기 순차 발사

경기도가 발사한 '경기기후 위성 1호기(GYEONGGISat-1)'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해 운영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올 하반기 2호기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 2025년 11월, 미국 반덴 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 로켓에 실려 발사된 경기기후 위성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순조롭게 순항 중이다.

1호기는 현재 자세제어 분석, 카메라 시운전 및 데이터 송·수신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본 촬영을 시작해, 도 전역에 대한 영상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학위성인 기후위성 1호기는 3년간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재난재해 정밀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공된 데이터 산출물은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경기도서관 1층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1호기의 실시간 위치와 경기도 상공 통과 예정

시간, 위성이 촬영한 결과물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호기가 토지 이용 변화와 재난 재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면, 올해 하반기 발사될 2호기(GYEONGGISat-2A)와 내년 상반기 발사 예정인 3호기(GYEONGGISat-2B)는 온실가스 배출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2·3호기에는 메탄(CH4) 농도를 측정하는 정밀 센서가 탑재된다. 이를 통해 도내 산업단지

등 특정 지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관측 지도'를 구축해 경기기후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2호기 위성체 내부에 도민의 이름을 새기는 '도민 이름 각인 이벤트'를 다시 한번 개최한다.

작년 1호기 도민 이름 각인

이벤트에 이어 올해도 도민의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름들은 특수 제작된 금속판에 각인되어 올해 하반기 2호기와 함께 우주 궤도로 향하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 위성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상징이며, 우주 항공산업을 비롯해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면서 "경기 기후위성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경기기후위성(경기도제공)

전남도, 깨씨무늬병 피해 농어업인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1년 유예

2025년 53곳 12억5천만원 상환 부담 완화

전라남도는 지난해 깨씨무늬병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상환 유예 대상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전남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다. 병해 피해로 일시적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이번 조치로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53개 농가가 총 12억 5천만 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해 2027년으로 상환 기한이 연기돼 1년간 상환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상환 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13일까지 기존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재해와 병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과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연리 1%로 농어촌진흥기금 중·장기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강진군, 청자축제 밝힐 유채꽃밭 준비 구슬땀

취약 농가 적기 영농 지원 서비스

강진군이 오는 21일 강진군 대구면 일원에서 개막하는 제54회 강진청자축제에 맞춰 유채꽃밭을 선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유채꽃은 4월에서 5월에 피는 대표적인 봄꽃이지만 군은 강진 청자축제 기간 중 활짝핀 꽃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해 왔다.

입춘이 지나면서 낮에는 온기가 감돌지만 야간에는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는 날씨임을 감안해 비닐온실을 설치하고 전국을 탐색해 선발 수집한 유채 품종 종자를 심어 6개월간의 관리기간을 거쳐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강진군은 축제 개막과 함께 유채꽃밭을 개방해 관광객들이 마음껏 사진을 찍고 꽃향기와 봄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하

고 온실내 톨립 꽃 포도존도 배치해 다양한 볼거리와 포토존을 제공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초봄에 꽃

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꽃과 함께하는 청자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강진청자축제장에 조성한 유채꽃밭을 살펴보고 있다.

제2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체계적 준비 돌입

생육 관리·품종 선별 등 기초 작업 착수

가을을 수놓을 '제2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첫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6일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익산시국화분재연구회(회장 박윤순) 연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축제에서 선보일 국화분재 작품과 경진대회 출품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연구회는 축제 작품 구상에 맞춰 생육 상태가 우수한 국화 품종을 선별하고, 국

화분재 뿌리묘 올리기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국화축제 준비를 기초 단계부터 차분히 다져가는 첫 작업으로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국화 재배 기술 향상과 품종 다양화, 생육 상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연구회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국화분재 전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기별 재배 기술과 작품의 독창성, 익산다움을 표현하는 분재 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회원 역량을 강화하고 축제 작품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윤순 회장은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 우수한 국화분재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재배에 매진하고 있다"며 "올해 축제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장흥군,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성황리에 마무리

인원 대비 211%의 높은 참여율 기록

장흥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총17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총 2,594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당초 계획 인원 대비 211%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중심 교육에 대한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과 교육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 과정은 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과 농업경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으며,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벼 재배기술 ▲지역 특화 작목 재배기술 ▲농작업 안전 관리 ▲스마트 농업 활용 방안 ▲농산물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총 9개 과정이 마련돼

17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최근 농업 현안으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 농업,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영농 방법 등에 대한 강의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흥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흥군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이 작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2025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콘스티벌> 수상작으로, 국민 "김자성, 박준혁, 이윤정, 최하영"님이 재단한 공익광고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 출처(URL) 확인
발: 발신자 확인

택배가 출발했다면 스미싱 예방법 출발을 기억하세요

이 작품은 생성형 AI Chat GPT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